

문화광장



이 나 연
미술평론가

2008년, 뉴욕 현대미술관(MoMA)은 미술사에서 가장 기이한 거래 중 하나를 성사시켰다. 작품명 '키스'(2003), 약 7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됐지만, 미술관에 도착한 것은 캔버스도, 조각도, 심지어 서면 계약서 한 장조차 아니었다. 거래 일체는 변호사와 공증인 앞에서 오직 구두로만 체결됐으며, 어떠한 물질적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는 엄격한 조건이 따라붙었다. 이 전례 없는 소장 주인공은 21세기 가장 급진적인 예술가 중 한 명, 티노 세갈이다.

사물 없는 예술: 티노 세갈이 설계한 '상황'의 힘

세갈은 자신을 '퍼포먼스 아티스트'라 부르는 것을 거부한다. 대신 자신의 작업을 구성된 상황(Constructed Situations)이라 명명한다. 그의 전시장에는 물성을 지닌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갈에 의해 훈련된 '인터프리터(재연자)'들이 관객에게 다가갈 질문을 던지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관계를 형성할 뿐이다. 작품은 관객이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시작돼, 나가는 순간 싹기투처럼 사라진다.

정치경제학과 무용 등 그의 이력은 이 급진적 예술의 사상적 토대가 된다. 세갈은 미술관을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의 '경제적 소우주'로 간주하고, 물질적 생산 없이도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자연을 소모하지 않는 그의 작업 방식은 동시대 생

태적 윤리와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2010년 구겐하임미술관의 비워진 나선형 복도를 걸어 올라가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세대별 인터프리터와 진보를 논했던 '진보(This Progress)'(2006)는 물질과잉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축적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는 작품이었다.

그의 작품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될 수 없다. 오직 목격한 이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이는 순간을 소유하고 박제하려는 현대인의 욕망에 대한 강력한 거부이기도 하다. 2013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바닥에 앉아 허밍하고 비트박스를 하는 소수의 퍼포머들만으로 황금사자상(최고 작가상)을 거머쥐었을 때, 세계 미술계는 '사물 없는 예술'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월 말부터 리움미술관에서 열리기 시작한 그의 국내 첫 대규모 개인전 '티노 세갈 / 컬렉션'은 이미 미술계의 화제다.

물질적 화려함과 거대한 설치물에 익숙해진 관객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느끼게 하는 세갈의 상황은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캔버스 너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떨림 속에 존재하는 그의 예술은 우리가 잃어버린 순간의 현존을 되찾아줄지도 모른다.

형태가 없기에 파괴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기에 모두의 것이 되는 예술. 세갈이 설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물건이 아닌, 인간의 목소리와 눈맞춤이라는 예술의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 리움의 비워진 공간에서 펼쳐질 이 경험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사설

박진경, 유공자 등록 취소 수순은 사필귀정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26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법률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등록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등록 취소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때 법률이 정한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신청해 관련 규정을 어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따른 조치다. 또 박 대령은 유공자 등

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은 유·가족이 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이미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4·3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보훈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4·3 당시 양민 학살을 주도한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은 후세대에게도 국수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행위다. 보훈부는 일련의 절차를 법 규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제주 확대 안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춰 제주형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제주자치도는 말산업과 에너지·해양 등을 중심으로 제주 포지 종합체육관 공영물이 50%를 갖 넘기면서 체전 기간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서귀포시는 '공정률이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는 입장. 2일 시는 노후된 88체육관을 철거하고 건립 중인 3095석의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공영물이 2월 기준 54.4%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3월 이후 지붕 트러스 공정이 완료되면 날씨 영향 없이 내부공사 진행이 가능해 지연 없이 10월 준공 예정"이라며 "전국체전 때 탁구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이후 경기장을 개방해 시민생활체육시설,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문미숙기자

통을 동시에 갖춘 만큼 연구개발(R&D) 기획과 평가, 제도화를 위한 범도민운동본부 출범을 위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1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주에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는 행태가 반복되는 안 된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귀포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모두 8곳이다. 당초 9곳이었으나 제주도가 2012년 12월 21일 제의동포재단(제의동포청 승격)이 2023년 수도권으로 다시 떠나면서 그 수가 줄었다. 지난해 9월 민간연구기관인 혁신도시정책연구원(위원장 김기현)이 발표한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에서 서귀포혁신도시는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연구원은 이름만 혁신도시일뿐 상생 없이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다시 이 같은 생애너지·그린수소·독립전력계

열린마당

국립공원의 날, 자연을 미래로 이어가길



김 광 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2020년, 전국 24개 국립공원과 자연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의 날'(3월 3일)이 올해로 여섯 번째 기념일을 맞이했다. 24개 국립공원 중 하나인 한라산국립공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생태·문화·역사가 공존하는 공공의 자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라산을 탐방할 때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첫째, 공공장소에 걸맞은 탐방 예절을 지켜야 한다. 금연, 쓰레기 투기 금지, 지정된 탐방로와 지정

된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안전하고 원활한 산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일·하산 가능시간 확인, 탐방로 난이도 파악, 당일 기상 점검, 충분한 식수와 필수 등산 장비 준비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셋째, 각 국립공원의 입산 정책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 백록담 구간에 대한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구간을 탐방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하기에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공원 탐방은 자연을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다. 국립공원의 날을 계기로 오늘의 자연을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온전히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뉴스-in

국힘 "516로 명칭 변경 논의 중단을"

"행정 역량 민생 집중하라"

"체육관 공영률 이상 무"

○...제주도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고기철 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명칭 변경 논의 중단을 촉구.

국민의힘 도당은 "도민 사회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사안을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꺼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도민 갈등을 재점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정이 집중해야 할 영역은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라며 "명칭 변경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제주 민생 회복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라"고 요구. 진선희기자

○...오는 9~10월 제주에서 열릴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 때 탁구경기장 등으로 사용될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공영물이 50%를 갖 넘기면서 체전 기간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서귀포시는 '공정률이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는 입장. 2일 시는 노후된 88체육관을 철거하고 건립 중인 3095석의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공영물이 2월 기준 54.4%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3월 이후 지붕 트러스 공정이 완료되면 날씨 영향 없이 내부공사 진행이 가능해 지연 없이 10월 준공 예정"이라며 "전국체전 때 탁구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이후 경기장을 개방해 시민생활체육시설,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문미숙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과상속인 : 망 김순주(1947. 9. 2. 생)
· 최후주소 :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115번길 15(남원읍)
상기자는 2023년 11월 1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6년 2월 25일 제주지방법원 2025노단5871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 서울 금천구 독산로76길 34 (독산동) 한기림(주) 상속사무소 (상행동)
한기림(주) 상속사무소 : 과천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제스틴빌 8층 130-1호 (상행동) 법무사사무소 (상행동)
2026년 3월 3일
공고인(특별상속한정승인자) 조해연, 조세연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3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K)약백도라지연구소

토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작명☆택일☆사주☆운세 상담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명해 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은퇴 없는 평생직장 역학상담사
1.역학상담사 자격증반 2.철학원 창업반(통변증심)
※ 개인교습으로 수시모집
☎ 연락처
동방철학원 064)759-4585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도지부장 문학림